디지털타임스 뉴스인쇄

기사 주소: 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4021902011576650005

C형 간염 `표적지향 치료제` 개발

안경애 기자 naturean@dt.co.kr | 입력: 2014-02-18 20:25

한세광 포스텍 교수(신소재공학과)

국내 연구진이 기존 C형 간염 치료제보다 효능이 2~3배 높고 부작용이 적은 표적지향 치료제를 개발, 상용화를 추진한다.

한세광 포스텍 교수(신소재공학과·사진)팀은 `히알루론산 기반 C형 간염 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' 기술을 개발, 신풍제약에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. 신풍제약은 기술이전 대가로 단계별 정액기술료 5억원과 매출액의 2%를 경상기술료로 포스텍에 지급키로 했다.

현재 C형 간염 치료제로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인 인터페론알파에 합성고분자를 접합한 페길화 인터페론을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과 병용해 사용한다. 스위스 로슈의 `페가시스', 미국 머크의 `페그인트론' 등이 대표적인 페길화 인터페론 치료제다.

그런데 페길화 인터페론은 체내에서 간 외에 다양한 장기에 전달되고, 반복 투여하면 탈모·빈혈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.

연구팀은 인터페론 알파에 합성고분자가 아닌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접합, 페길화 인터페론과 달리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치료제를 개발했다. 히알루론산은 동물의 관절, 안구의 유리체 등에 있는 생체고분자물질이다. 이렇게 개발한 치료제는 기존 C형 간염치료제보다 효능이 2~3배 높은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나타났다.

한 교수는 "기술이 상용화되면 연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C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"이라며 "C형 간염치료제 외에 간경화, 간암 등 간질환에 특화된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안경애기자 naturean@

[저작권자 ⓒ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]

출력시간: 2014-02-19 10:40:04